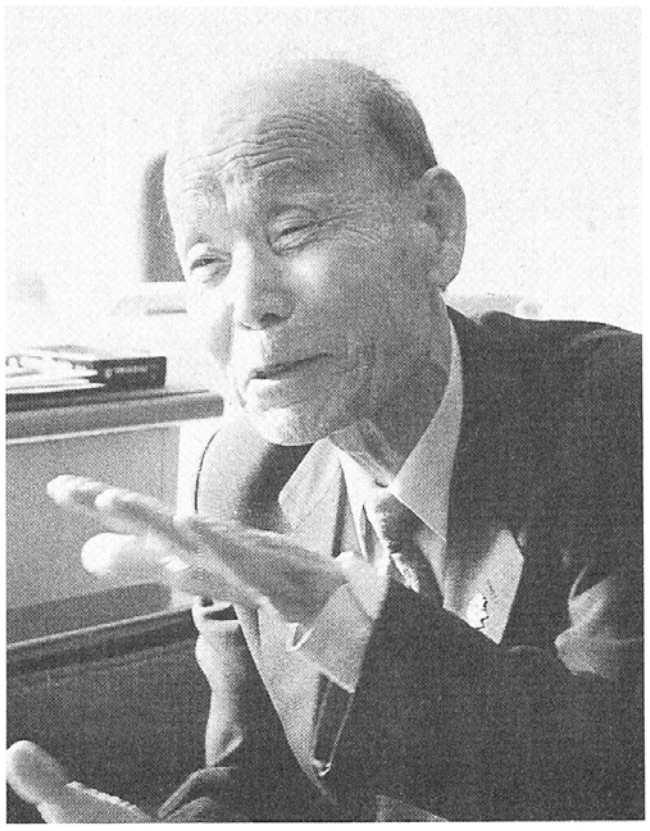
"악기연주도 춤도 마음이 하는 일"

산문밖의 禪

인간문화재 1호 김천흥 翁



궁중무 맥 잇기 73년… 呈才동작 40여종 복원
악보속 악보 볼때 득음…"멈춰진 동작도 춤"

화려한 도드리 선율과 흥청대는 타령 반주에 용상의 임금은 귀가 즐겁다. 축연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대신들의 눈과 귀가 가운데 큰 북을 두고 둘러선 무인(舞人)들에게 쏠리고 정재(呈才)의 동작은 멈춘듯 흐르는듯 끝없이 이어진다. 무인들은 손에 든 목단꽃을 멋드러지게 움직여 보인다. 춤추는 이와 음악과 그것을 보는 임금과 대신들이 한바탕의 정재에 빠져드는 즐거움이 하루의 축연을 치장한다.

나를 잊고 율동에 빠져

정재 '가인전목단(佳人揃牧丹)'의 한 바탕은 옛날 궁중 연례를 이렇게 무르익혔을 것이다. 고귀한 왕실의 품격과 인간적인 흥겨움을 임금과 신하 사이에 흐르는 도드리·타령장단으로 어우르면서.

일제 강점이후 자칫 끊어질뻔 했던 궁중무의 맥을 이어 온 김천흥(金天興·무형문화재 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87세)옹. 김옹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으로 음악에 몸담아 73년의 성상을 지켜 온 재량을 후학에 전하고 있다.

"궁중무용은 궁중이라는 별난 분위기로 인해 매우 격이 높은 율동이지. 요즘처럼 방정맞은 동작이 임금 앞에서 허용될리가 없잖아. 그 높은 격의 동작은 인간의 흥겨움을 합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성의 다스림과도 통해 있어. 그러나 무인(舞人)은 그 격조 때문에 긴장하거나 임금 앞이라서 떨거나 하질 않지. 그저 율동에 빠져드는 것만이 그들이 할 일의 전부이니까."

지금은 임금도 없고 궁중이란 절대권위도 없지만 그 율동을 이은 한 무인으로서의 김옹에겐 오직 정재의 율동에 빠져드는 일만이 최고의 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종묘제례 문묘제례의 일무(제례의식 때의 춤)와 해금·양금·아쟁 등 기악을 두루 섭렵한 노악사(老樂師)로서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김옹의 할 일. 그 일은 다름아닌 우리 음악과 무용의 정신을 올곧게 찾아 세우는 일이다.

"내가 해금을 탄다고 해. 한 박자의 악보를 타고 다음으로 이어질 때의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야. 다시말해 수많은 음악들이 물 흐르듯 이어지며 하나의 곡을 형성시키는데 그 사이사이의 흐름을 잇는 그 무엇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 악보 읽으며 그저 기보된 대로 연주를 한다고 그것이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없거든. 그 악곡이 살기 위해서는 그 음악의 정신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야."

하나의 음악이 연주될 때 그 음악이 살아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 연주자는 악보 속의 악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득음(得音)이란 얘기다. 악보만 좇아가다 연주를 마치는 것은 잘 된 연주일 수 없음을 김옹은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김옹은 "손으로 악기를 타지말고 마음으로 악기를 타야 한다"고 단언을 한다. 이 이치는 김옹이 14세의 나이로 1922년 이왕직 아악부에 들어가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화두처럼 끌어안고 살아 온 것이기도 하다.

"춤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춤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의미없는 몸짓에 불과해. 손 동작이 어느 순간 멈춰져 있는듯 해도 사실은 그게 계속 율직이고 있는 것이거든.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춤에 젖어 있으면 그 정중동(靜中動)의 흐름이 보이기도 해. 춤추는 사람도 한 동작 한 동작을 넘기는데 온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해."

마음을 비워야 춤이 된다는 의미 역시 정격의 정재를 추어 온 김옹의 화두이다.

"내가 춤을 추면서 다음 동작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생각한다면 그 춤은 어기적거리는 둔한 몸짓이 될 수 밖에 없어. 다음 동작과 그 다음 동작까지 모조리 잊어 버려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바탕의 춤이 완성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나긴 연습시간과 몸에 배인 동작의 자기화로 가능해 지는거야."

음악이건 춤의 가장 기본적인 골간은 다름아닌 장단고저(長短高低)이다. 음을 길게 짧게 불고 강하게 약하게 치는 것이 음악이고 동작을 크고 작게 힘있게 약하게 이루는 것이 춤이다. 그 장단고저의 막힘 없는 조절이야말로 악사나 무인(舞人)의 재량인 것이다.

장단고저 막힘 없어야

"긴 박자를 길게 하고 강한 곳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 그 쉬운 것에서 수많은 음악과 춤이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러나 그건 쉬운게 아니야. 깨달으면 부처된다는 수운 말이 막상 그렇게 이루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움을 평생 걸어 온 음악의 길에서 절감한다는 김옹의 이야기. 그러나 어린 소년시절의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연습과 옛날 서적을 뒤적여 전하지 않는 정재 40여종을 복원시연해 온 긴 세월의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 쉬운 이치에 대한 절감도 없었을 것이란게 김옹의 고백이다.

요즘의 음악과 춤은 빠른 박자 일변도다. 그러나 김옹은 "느린 것에 도(道)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느린 동작의 감동이 오래 간다구. 빠르면 빨리 사그라드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야. 느릿느릿한 동작, 그 속에 인간의 혼을 담아 내는 것이 제대로 된 춤이지. 옛날 것이어서 느린게 아니고 인간과 귀신을 감동시키는 혼의 힘을 담기 위해 느린 것이거든. 사실 느리게만 보이는 궁중무에도 추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빠른 곳이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지."

열린 눈, 열린 마음으로 정재를 시연하고 또 그런 자세로 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춤의 조건이란 것이다.

"순종황제 50세 생일잔치 때문에 엄동설한의 밤에 배운 정재가 우리민족의 율동을 잇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러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니까 다행이지 뭐. 그 율동과 음악 속의 정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연태 기자

어떻게 앞일의 예측이 가능한가

문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란 사람이 수백년 전에 예언서를 썼는데 그게 80~90%는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해서 앞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숙현·인천 중구 사동〉

답 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언이란 소인배들의 관심사이지 공부하는 이들의 바른 지견이 아닙니다. 가령 어느 때쯤이면 자동차가 나온다, 컴퓨터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다 합시다. 그 예언이 있어서 자동차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온게 아니라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온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예언같은 말씀하신 일이 없으신데 그것은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자유자재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요. 삼세가 지금 이 순간에 다 집결되고 거기서 벌어지고 하는 것이니 찰나찰나 마음내는데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 예언은 소인의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령 뭔가 잘못될 것 같다 싶으면 '잘못될 것이다' 말하기 전에 좋게 돌리고 좋게 이끌어 주는게 도리이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미리 말했듯이 그렇게 되지 않더냐, 거봐라'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십만팔천리나 벌어지는 것이 됩니다. 유념하기 바랍니다.

윤회는 상·하천계 오르내림인지

문 사람이 윤회를 한다면 상천세계와 하천세계를 오르내리게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천세계로 떨어진다면 지옥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요.

〈김이준·성남시 상대원동〉

답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시작했듯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 동물의 탈을 쓰고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사람으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다면 동물의 탈을 썼어도 좀 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으로 살다가 짐승이 되는 수도 있고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벌레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얼마를 돌고 돌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열심히 해서 차원 높게 진화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동안 신·구·의로 짓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해서 개의 몸을 받게 되었다 합시다. 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개대접 밖에는 못받을 터이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나마 국 냄새 밥 냄새도 못맡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요. 몇천 번을 밟혀 죽고, 어느 때는 칼 맞아 죽고 끓는 물에 튀겨지고… 그게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지옥이 어디 따로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이 이승에도 지옥같은 삶이 있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자유자재할 권리도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굴로 들어가면 다 지옥인 셈이지요.

그러니 이 몸 받아 불법만났을 때 깨우쳐 부처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부처 되겠습니까. 부처되기까지 계속 닦아야 합니다. 육도윤회에서 자유자재하려면요.

습이 무거운지 놓아지지 않아요

문 일체를 한마음 주인공에 믿고 맡기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시 의심이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만 습이 지중한지 잘 안됩니다. 가르침 비립니다.

〈남태정·진해시 용원동〉

답 본래 뿌리를 굳게 믿고 안다면 한 생각에 놓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번뇌망상이라는 게 과거에 숱하게 녹음되었던 것이 솔솔 풀려나오는 것과 같은데 예를 들어 나무로 치면 잎사귀나 가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잎사귀나 가지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뿌리이지요. 나무의 정체를 알려면 잎새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뿌리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 뿌리, 즉 한마음 주인공에 일체를 몰락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던 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 습이 잔뜩 입력된 녹음기, 또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것은 하나도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입력된 것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되입력 시켜라 이겁니다. 믿고 놓으라는 것은 이열치열과 같지요. 그런데 습을 떼어야겠다고 애를 쓰는게 아니고 무조건 맡기는 것입니다. 습을 녹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녹음테이프를 지워서 공테이프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지우면서 다시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한마음 속에서, 주인공 속에서 나온 것이니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것은 또하나의 작위가 아니라 공테이프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다 알아서 하라고 못맡길 이유가 없지요. 한발 떼어놓으면서 발떼어 놓는 것 생각하질 않아도 잘 걸어가듯이 그렇게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구심이 나더라도 그것마저 나온자리에 놓으라는 것이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축 창간1주년

덕암 화상 문도회

임원 및 연수교육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10월 21일(음 8월 27일) 문도 정기 총회에서 선출 및 위임 구성한 덕암화상 문도 임원진과 제1차 연수교육 모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협조와 참석을 바랍니다.

연수교육

- 일 시: 2539년 11월 14일(음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2시부터 2539년 11월 15일(음 9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 장 소: 서울 종로 불이성 법륜사 (주지 : 혜일)
- 전 화: (02) 732-3920, 2710
- 대 상: ① 은제자 ② 법제자 ③ 수계제자 ④ 참회제자 ⑤ 큰 스승님의 손 상자
- 지참물: ① 가사 장삼(각자 종단 가사 수 가능함) ② 교육비 ③ 필기 도구 ④ 기타

임원명단

- 명예회장: 혜초·소암
- 고 문: 철화·혜우·혜천·정각·혜철·혜숭·영운·금선
- 회 장: 무공
- 부 회 장: 고허·만화·학성·상허·혜등
- 총 무: 혜각
- 교 무: 혜준
- 재 무: 혜일
- 사 회: 혜광
- 서 기: 수근
- 감 사: 법련·광해
- 이 사: 혜공·충허·법해·세웅·청공·용화·혜숭·도명·영계·혜운·성각·산웅·고진

(이사회는 집행부와 이사로 구성함)

문도명단 … 임원제외(무순)

- 서 울: 혜선·석운·법정·혜명·각명·상태·지광·운계·혜범·형진·무심·성덕 상묵·혜성·혜적·혜공·원산·태순·혜명·영공·혜덕·도봉·중남·선덕
- 경기·인천: 혜양·혜득·혜충·충허·혜장·효진·고산·수산·덕승·영공·천연 원성·성태·지환·혜봉·성우·철우·경전·만허·진원·도봉
- 충 청: 혜화·혜암·삼명·문허
- 강 원: 금선·혜청·혜성
- 경 상: 겸담·석송·도송·보련·자원·영운·남화·도오·정허·향암·혜춘·탄경·상수·혜학 고진·지운·청운·보화·산웅·무재·청안·동법·청원·운산·자행·법웅·춘식·혜장
- 전 라: 상명·도산·자행·혜조·혜신
- 제 주: 현각·혜종·해관·지조
- 해 외: 혜원·혜성

※ 문도 208여명중 문도록에 올라 있지 않아 통지를 못 받은 80여명의 문 형제들께서는 양찰하시고 서로 연락하고 말씀드려서 빠짐없이 참석하고 스스로 연락해 죽으로써 완전한 문도록을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암 화상 문도회 회장 무 공